



열세번째 이야기

기도로 일구어 온 역사!

[2020 '준비하라' 시리즈 ④]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성도들이 더욱 깨어 말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BEE의 말씀사역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한 BEE토요 기도모임 뿐만 아니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BEE에서 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BEE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많은 눈물과 기도로 BEE의 역사와 함께 해온 'BEE화요 종보기도모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1998년 조문상 목사님께서(그때는 목사님이 아닌 송실대 건축과 교수, BEE의 총무임) 주중 한 날을 정해서 종보기도모임을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는데, 선뜻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다가 우선 화요일로 정하고 네 사람이 모여서 구혜선(BEE의 아주 초창기 간사)성도 집에서 모이기 시작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모임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한참 후에 YWAM의 Joy Dawson의 종보기도 형식에 따라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여기저기에서 소식을 듣고 BEE식구들이 모여들었고 기도는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종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된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오랜 기간 지치지 않고 기도한 후에 응답해주셨습니다.

한 예로 초창기에 BEE 사무실이 두란노 건물에 있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열심히 오래 기도한 것인데... 당시 BEE가 두란노 건물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2층에서 3층으로, 또 5층에서 6층으로 거의 일 년에 한 번씩 가라고 하는 대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힘도 들었지만 집 없는 어려움을 체감하며 사무실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맘에 드는 어떤 건물을 빙빙 돌면서 몇 달을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얻기 위한 기도가 6년째 되던 2005년에 상도동 주택을 매입하게 된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터 위에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게 하셨으니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후하고 넘쳤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의 역사만큼이나 기도의 응답도 풍성했습니다. 김사무엘 목사님과 김내헌 목사님께서 BEE사역으로 몽골의 문을 두드렸으나 때가 맞지 않아서인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끝내고 총 4권의 책을 번역도 했으나 사역이 진행되었던 교회의 목사님이 바뀌어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 몽골 선교사님과의 연결로 지금은 DPM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BEE 중창단이 리더가 없어 쉴 수밖에 없었을 때 재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응답으로 류지혜 사모님이 지휘자로 오셔서 중창단이 아니라 코러스단 '루체 콰이어'로 승격(?)시켜 주셔서 BEE 사역과 함께 선교지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심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일본 사역을 위해서도 12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역의 길이 열릴 기미가 안 보여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일본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쉬워 기도를 계속하던 중, 나문채 선교사님이 파송되면서 일본에서 BEE세미나가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중보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긴박한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많았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2019년 좀처럼 당황하지 않던 김정년 선교사님이 다리수술을 앞두고 수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도부탁을 하셨습니다. 수술 날이 정해지고 긴박성과 간절함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리가 휘어져서 뼈를 자르고 보철을 넣는 수술인데 그 과정이 간단치도 않을 뿐더러 그 연령에 어려운 일이라 수술 후에 다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술 후 3개월의 기다림 끝에 선교사님은 걷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기도응답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껏 그래왔듯이 BEE화요 중보기도모임은 멈춤 없이 계속 될 것이다! 화요일 2시 선교관 VIP Room 에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각각의 처소에서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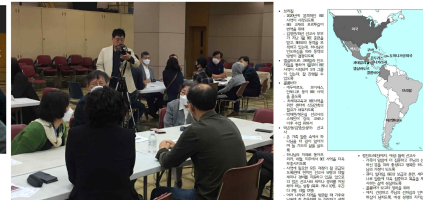
[글쓴이: 정진희 권사]
BEE Korea의 초창기부터 함께하시며 많은 사역을 기쁘게 섬김으로 BEE의 부흥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모두의 왕언니로, 지금은 루체의 단장으로 섬기시며 BEE화요 중보기도모임의 기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글: 정진희 권사, 정리: 이경주, 편집: 최선]

BEE의 보석찾기-기도 테이블 편

13. 미주 기도 테이블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현재 Zoom으로 진행되는 BEE기도모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때에 이런 새로운 기술적 방법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렵지만 BEE식구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기쁨과 평안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 윤현덕 장로

BEE 소식

1.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는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2. 매주 토요일 6시 30분, 서빙고 한동홀과 시온홀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선교지 곳곳의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BEE 기도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속 거리두기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BEE 식구들을 축복합니다!